

전북도립미술관, 공간·장르 확장 시도

파블로 피카소 도예전·전북 지역 작가 전시 등 다양한 전시 일정 공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2026년 전시 일정을 공개했다.

도립미술관은 올해도 변함없이 국제성과 지역성을 연결하는 문화허브, 연구와 교류의 플랫폼 구축의 역할을 주도하면서도 도내 작가를 대방면으로 지원하고 공간과 장르의 확장을 새롭게 시도한다.

올해 7월에 개막하는 특별전은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파블로 피카소의 또 다른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 피카소가 프랑스 남부 발로리스 지역에 머물며 제작한 도자기 작품들을 통해 보여준 초형 실험과 예술적 사유를 도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협력 사업 'MMCA 지역동행'의 명작전 순회 기관으로 선정된 결과이다.

전북 지역 미술사 연구와 전시도 빠질 수 없다. 올해 만나볼 전북의 작가는 정음 출신의 전수현(1947~2018)이다. 그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은 한국 1세대 설치작가이다. 이 전시 '전수현: 언젠가 거인은 온다'에서는 전북 미술이 지닌 매체적 다양성과 실험 정신을 조명하고자 한다. 3월에 개막 예정이다.

10월에는 전주에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되었던 온다라미술관과 참여 작가, 전시 및 작품들을 선보인다. 온다라미술관은 지역성과 연대를 바탕으로 당대 사회문제를 예술로 풀이한 공간이면서 당시 민중미술의 중요한 거점이자 후원 공간이었다. 특히 중앙화단의 작가들을 전북 지역에 유입시켜 지역 미술의 성장, 전북민중미술인협회 등 지역 미술 운동 단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의의를 지닌다.

매년 전북 청년 작가를 지원하는 '전북청년 2026'은 올해 본관에서 서울분관(종로구)으로 전시 장소가 바뀐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인 키아프(KIAF)와 프리즈 서울(Frize Seoul)의 개최 기간인 9월 초에 맞물리게 전시함으로써 전북 청년 작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선정된 작가는 김규리(사진), 조민지(설치)이다.

그밖에 신소장품전이 3월, 5전시실에서 열린다. 신소장품전에서는 '전북현대미술제'와 '온다라미술관' 출품 구입작, 박민경 유족의 기증작 등을 통하여 전북 회화의 근간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아울러 지역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트전북페스타에서 구입한 작품도 소개한다.

또 미술관 1층 로비에서는 기증소장품을 테마에 맞게 전시하여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증소장품 상설전 '고귀하고 고귀한 이 연중 3회 교체 전시'하면서 미술관에 입장한 관람객을 마중한다. 또 대이수묵원 내 숲문화마루에 마련된 대이수묵원에서는 동시대 미술 담론을 제시하는 도내 청년 및 중장년 작가를 대상으로 봄과 가을에 기획 전시를 열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미술관은 활발하게 추진된다. 찾아가는 미술관은 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기획 전시와 체험형 공공미술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크게 나뉘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 미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먼저 2022년 9월부터 매월 진행된 시·군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자 간의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올해 2월에는 시·군 공립미술관 협력전시 프리뷰전, 9월에는 협력기획전이 서울분관에서 개막한다.

지역 작가를 지원하는 대관 전시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서울분관에서는 2월부터 배병희 작가를 시작으로 전북 출신의 대표적 청장년 작가 16명의 개인 전시가 진행된다. 서울분관은 전북 미술가의 창작활동 진흥 및 확장을 위

한 수도권 전시 공간 활용, 국내의 전시기획자와의 접점 기회 확대를 통한 홍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청 전시실 대관 전시는 22명(명)이 공모에 선정되었다. 전북도청 전시실은 전문 미술인 뿐만 아니라 사진, 서예, 공예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생활 예술 단체들의 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2026년 하반기부터 지역 예술인(단체) 지원 사업에 부합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기로 했었으나, 지역 예술 아카이브 수집 확대를 위해 전북도립미술관에서 계속 운영한다.

올해 미술관의 전시 사업 중 특기할 사항은 공간과 장르의 확장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완주군 체육공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전시 공간을 조성하였고, 모악산 주변 산책로에 전북 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기획한 야외 전시 '남쪽으로 지는 해'를 진행 중이다. 올해도 미술관 야외정원을 포함한 예술정원 프로젝트로 도민이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 미술관 대강당에서는 독립영화, 영상 매체 작품을 상영하는 'JMA 필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애선 관장은 "지난 3년간 전북지역 미술사 연구 전시, 동시대 담론을 반영한 전시, 시·군 학예연구사와 지역 기관 간 협력·연대한 전시를 꾸준히 기획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해야 할 전북 미술사 영역은 존재하고, 협력과 연대의 결과물도 확대, 발전해야만 한다. 여전히 그 과정에서 전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카소의 도예전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주실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들에게 미술관이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16)

죽은 드끼 옆드려 살자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아악!" 남준은 눈을 떴다. 꿈이었다. 밖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에 상여를 장식했던 종이꽃이 흔들거리는 게 초승달빛에 보였다. 남준만 남기고 가족 모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 모두가 따뜻한 불기에 앉아 불을 쬐고 있는데, 너만 혼자 외로이 떨어져져서 추위에 떨고 있더구나."

이들 전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 신동택이 했던 말이 머리에 스쳤다. 눈에서 또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슬펐고 외로웠다. 눈물샘이 고장난 사람처럼 잠시 눈물을 흘렸다.

남준은 몸을 일으켰다. 살아 있으니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의무다.

새벽 첫닭이 울 무렵 남준은 외가인 고창읍 신동리 신동마을에 도착했다. 첫새벽에 남준이 나타나자 외할머니와 외삼촌은 변고가 있음을 짐작했는지 아니면 짐작으로 이미 알고 있었는지 담담한 얼굴로 맞이했다. 남준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의 죽음을 알렸다. 외조모는 아이고, 하면서 돌아앉아 울었고 외삼촌도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면서 소열했다.

"대체 가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 목심들을 그렇게 했어?"

그러나 외할머니도 외삼촌도 들어내놓고 그들을 험담할 수는 없었다. 이곳도 아직은 인민군 세력권에 있는 마을이었다. 게다가 죽음이 여기서도 흔해 빠진 일이었다.

육이오가 터지자마자 경찰들은 고창을 떠나면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죄악이나 보도연맹원들을 모두 골짜기나 계곡, 다리 밑으로 끌고 가 썩 죽였던 것이다.

신동마을에서 서북쪽으로 일 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고창성당 소속 동해원 공소 마을에 살고 있던 나병환자들도 죄악 성향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모두 살해되었다.

물론 반대로 지난 달 정규 인민군이 철수한 이후 남아 있던 인민위원회 소속 자위대는 육이오 전에 자신들을 업신여겼던 자들의 가족들을 역시 모진 모습으로 죽였다. "죽은 드끼 옆드려 살자."

외조모는 한동안 눈물을 뿌리며 슬퍼한 뒤 남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남준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가끔 환청과 환시에 시달렸는데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으며 훌쩍였고 외조모는 측은한 눈으로 남준을 바라봤다.

외할머니는 매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

어나 우물에서 기른 물을 하얀 사기그릇에 담아 신당에 올리고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

를 올렸다.

남준은 외가의 가족들과 함께 외조모의 말처럼 죽은 듯이 엎드려 지냈다. 남준 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부모님과 동생들이 처참하게 죽던 날 있었던 가려움증은 그날 이후로 수시로 남준을 괴롭혔다.

소양감은 참을 수 없었고 손톱으로 가려운 곳을 박박 긁었는데 피부 살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겼고 피가 나기도 했으며 곧 발진이 생겼다.

외조모는 찬물로 몸을 씻으라고 권유했고 식초를 바르라고도 했다. 남준은 외할머니의 말대로 실천해봤다. 가려움증이 해소되는 듯도 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잠시 소양증을 완화시키는데 그쳤다.

가끔 평온한 몸과 마음이 되었을 때 남준은 아버지가 만들어줬던 피리가 생각나곤 했다.

남준은 주변 산에서 피리 만들기 좋은 시냇물을 잘라다가 아버지가 만들었던 방식을 기억해 피리를 만들었다.

대에 구멍을 뚫고 서를 만들어 대에 끼웠다. 완성된 피리로 아버지에게 배운 상령산을 불어봤다. 병림마을 개천 냇다리에 멧회를 얹어놓고 불었던 그 피리 소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한참 거리를 두고 저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소리는 고요했으며 적막했고 느슨했으며 낮게 깔렸는데, 남준에게 일어서 있지 말고 낮게 앉으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장수골프리조트, 승마 체험·샷건·이벤트 풍성

장수골프리조트(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18홀 대중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할 계획이다.

먼저 레스토랑 운영사 변경에 따른 변화가 눈에 띈다. 많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이용 후기를 보면 값비싼 커피 금액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장수골프리조트 레스토랑에서는 커피전문점 '더벤티'와 제휴해 4,000~5,000원대의 합리적인 금액으로 수준 높은 커피를 즐길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에는 입점 기념 특별 이벤트로 아베리카노 3잔 주문시 1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3+1 행사도 진행 할 예정이다.

사과, 한우, 토마토, 오미자 등 레드 푸드와 승마장, 경주마 육성, 훈련으로 유명한 지역인

장수는 올해 병영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 말과 함께 하는 이벤트도 기획 중이다.

장수 승마장과 협업하여 장수골프리조트 클럽하우스 앞 잔디 광장에서 승마 체험, 기념 사진 등을 추억으로 남길 수도 있다.

장수골프리조트 이용규 대표는 "지난해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로 힘들었지만 역동적이고 합한 활의 기운을 받아 새해엔 건강과 행운이 고객 여러분에게 모두 전달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2월 말까지 매주 특정일을 정해 샷건 데이트 지정, 진행하여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샷건이란 전 홀에서 모든 팀이 동시에 출발하는 방식으로 햇살이 따듯한 10~15시대에 라운드를 즐길 수 있고 그린피 합인도 받을 수 있다.



장수골프리조트 전경.

장수골프리조트내에 위치한 호텔급 프리미엄 골프텔 '장수 스테이'는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게 나를 중심으로 자연 속 생명력 회복을 테마로 한 웰니스 힐링 컨셉의 리조트이다. 도심 을 벗어나 드넓은 대자연 속 건강한 음식, 초 록빛 골프 코스 전망, 밤하늘에 수놓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픈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중에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